

미세먼지·경기침체가 가전 소비 트렌드 바꿨다

실내 생활 일상화 비수기에도 공기청정기·건조기 잘 나가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식...오븐 등 주방가전 인기

가전 시장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공기청정기·건조기·의류 관리기 같은 가전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가 하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몸에 좋은 건강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가전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젊은층으로 인한 '홈 뷰티기기' 제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을 비롯, 중소·중견 가전업체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철없는 가전, 비수기 '효자'=한파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가전 수요도 꾸준하다. 건조기·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로 대표되는 가전 제품들은 겨울 비수기에에도 꾸준히 팔리며 가전업체들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의류 건조기의 경우 최대 판매량을 매일 잡아치우는 등 겨울철 최고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 3년 전인 2016년만 해도 10만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지난해 100만대 규모로 커지면서 가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뿐 아니라 대우전자, SK매직, 위너스 등 중견 가전업체들도 뒤늦게 시장에 뛰어 들었고 용량별로 제품을 다양화해 소비자 눈길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kg짜리가 주를 이뤘던 건조기 시장은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최근에는 10kg, 14kg 대용량 뿐 아니라 1인 가구를 겨냥한 3kg대 소용량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건조기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최근에는 3kg짜리 소용량 제품을 내놓고 젊은층 1인 가구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류 관리기도 '트림 스타일러'로 초기 시장을 형성했던 LG에 삼성, 코웨이까지

가세하면서 겨울에도 호황을 맞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봄·여름 대표 가전으로 여겨졌던 공기청정기도 겨울에 더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비수기 가전업체들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중하나, 홈 뷰티 기기 시장 인기=외출 대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데다,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젊은층들의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진동 클렌저, LED 마스크 등이다.

국내 홈 뷰티 기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6년 전인 2013년, 800억원대 규모의 시장은 지난해 말 5000억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자외선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수요층이 늘어난 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몫을 했다.

LG전자의 경우 LED 마스크인 프라렐을 출시, 필립스, 파나소닉 등 외국 브랜드 중심의 뷰티 상품에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선 LG '프라렐'은 고가에도, 매일 10대 이상

팔려나가는 인기 상품이다.

◇경기침체에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식으로=대우전자가 최근 출시한 복합오븐은 에어프라이어에 전자레인지, 그릴, 오븐, 발효, 튀김 등 5가지 기능을 더한 기능으로 10만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외국인 에어프라이어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견줘 90%이상 늘었다. 웰빙 영향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름기 없는 식탁을 만들어주는 주방 제품인데다,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와 활용법 등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려지면서다.

경기 침체로 외식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점도 주방 가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 또 '에버그린 코리아'가 출시한 통돌이 오븐 제품도 기존 제품보다 30만원 비싸지만 평균 10대 이상 팔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스불을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도 출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책상 체형 맞게 조절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컴프프로' 매장에서 고객이 높이조절과 기울기가 가능한 책상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 아이들이 성장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컴프프로 매장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2월 말까지 품목에 따라 20~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28% 감소 어닝 쇼크

증권업계 전망치 훨씬 밑돌아

삼성전자가 증권업계의 애초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연간 영업이익 60조원' 달성에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12월(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59조원, 영

업이익 10조8000억원을 올렸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65조9800억원)보다 10.6% 줄었고 전분기(65조4600억원)보다도 9.9% 감소했다. 올해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1년 전(15조1500억원)에

비해 28.7%나 줄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전분기(17조5700억원)에 비해 무려 38.5%나 줄어들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4조원을 밑돈 것도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만에 처음이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치 평균(13조3800억원)보다도 훨씬 낮은 실적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확정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첨부했다. 삼성전자는 “대의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메모리 사업이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경쟁 심화로 실적이 둔화됐다”면서 “회생 비용 발생도 실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5.27 (-11.83)	금리(국고채 3년) 1.81 (0.00)
↓ 코스닥 668.49 (-4.35)	↑ 환율(USD) 1124.10(+5.50)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광주공장 생산라인 일부 점거

고용·단협·노조 인정 요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하도급 업체와의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일부 점거했다. 8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조원 9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 크릴 룸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농성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압연·압출 공정 일부가 멈춰선 상태지만 재고 물량이 남아있어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호타이어측 설명이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용역 업체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 조건 승계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을 촉구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 21일까지 4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광주·곡성공장 청소 미화 업무를 맡겼다. 이들 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계약 만료에 맞춰 금호타이어 측에 사업 포기 의사를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13일 광주·곡성공장 청소 미화 업무를 통합, 같은

달 21일자로 에스텍세이프에 하도급을 줬다. 에스텍세이프는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110여개 업체 사업장의 미화·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파견업체로, 비정규직지회는 에스텍세이프가 기존 임금 조건을 승계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노동자 110명 가운데 93명이 실직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에스텍세이프와 금호타이어는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에스텍세이프는 “연봉 3200만~3600만원 수준이다. 종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업체 사원을 우선 채용하고 법적 정년까지 정규직 유지와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 고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기존 단체협약 승계는 회사 경영 원칙, 인사 정책 등을 고려해 협의의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쟁의 절차를 무시한 생산라인 점거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으로 향후 공정에 차질을 빚는 데 대해 형사소송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 경유차 3개 차종 7만8721대 리콜

그랜저 2.2, 메가트럭, 마이티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사가 생산한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가 리콜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방침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인 시정 조처에 들어가

는 것으로,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 포집필터(DPF) 균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만8179대, 마이티 1만 9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 8721대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기업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구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